



긴절한 마음이 결과를 만든다(2)

원하는 일을 하라

學如不及(학여불급)이 배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라면, 유공실지(猶恐失之)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배운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 배움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배움에도 실천하지 못하면 그 배움은 헛된 배움으로 남는다. 배운 이후에 무엇인가 변화가 없었다면 배움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배운 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시간을 들여 배워야 한다. 반복되는 좋지 않은 습관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은 배웠던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배움 못지않게 간절함이 필요하다. 일을 할 때에도 배움 못지않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일은 마치 내가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즉 일이란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이 하고, 시기를 놓쳐 일의 결과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듯이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업무는

업무일 따름인데 그 업무에 무슨 개인적인 간절함을 넣는다는 말인가. 공적인 회사 일에 어떻게 꼭 마치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을 넣는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막연하지만 한 번 가보았으면 하는 곳이 있다. 또한 갖고 싶은 것을 늘 생각하며 산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자주 생각한다. 그것을 꿈이라고 한다. 하고 싶지만, 형편상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일 뿐이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간절함이 없는 소망은 그저 희망일 따름이다.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끝난다. 희망에 간절함이 더해져야 꿈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꼭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꿈을 가지면 성취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꿈꾸지 않는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할 시간이 얼마

든지 있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마라. 꿈꾸면 이루어지고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꿈에 시간을 더하면 드디어 선명한 목표가 된다. 꿈이 분명하다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목표가 없어 성취를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내는 연습술사 같은 사람들의 일급 비밀은 강력한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열정(passion)인 것이다. 열정은 목표나 임무에 앞선다.

열정이 성취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그럼 그 열정은 어디서 오는가? 열정은 꿈에서 온다. 그것도 간절한 꿈에서 오는 것이다. 공부나 내 것이면 된다. 회사 일이 내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학여불급(學如不及)이 가능해진다. 업무불급(業務不及)이 가능해진다. 원하는 공부를 하면 된다. 원하는 일을 하면 된다. 다시 원점으로 왔다. 원하는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원하는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직장인은 없다. 그러나 원하는 공부를 찾는 것이 답이다. 원하는 일을 찾는 것이 답이다. 한참을 뛰어왔지만 길을 잘못 들었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학여불급(學如不及)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최종엽 저 : 『눈어, 직장인의 미래를 논하다』에서 인용

수녀의 요가 교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고운 다습한 삼복의 절기도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태양도 한껏 힘차람을 하듯이 내리쬐는 날씨가.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심신이 지친 몸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에는 역시 걷는 것과 요가만한 운동이 없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 기억력도 향상된다. 요가는 스트레칭으로 몸 구석구석을 짚고 펴주어 나이가 많아질수록 줄어드는 근육의 탄력과 유연성을 젊음처럼 똑같이 유지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최고의 비결이다. 하기 싫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반대생각이다.

척추피로 풀기

효능: 허리 옆구리의 피로회복에 효과적. 잘못된 습관으로 기울어진 척추의 균형을 잡아준다.

동작①: 앉아서 오른쪽 무릎을 접고 왼쪽 다리는 쭉 펴준다. 상체를 바로 세우고 머리 뒤에서 각지를 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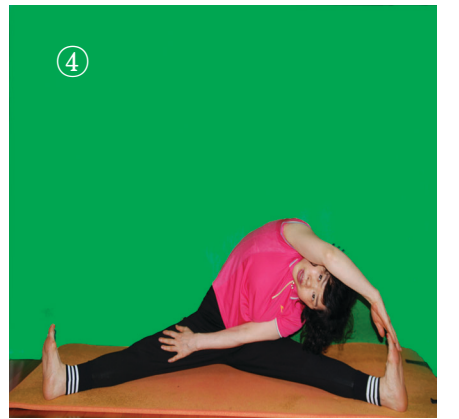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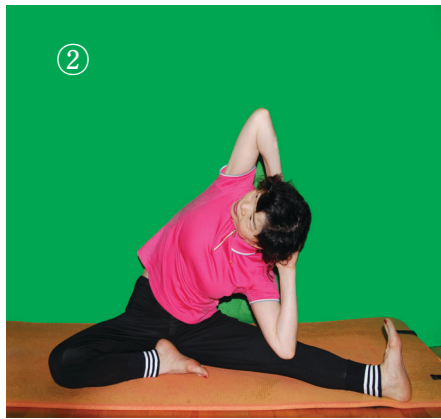
동작②: 숨을 내쉬며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팔꿈치를 무릎 앞에 내린다. 시선은 오른쪽 팔꿈치를 바라본다. 20초 유지, 좌우 각각 5회.



동작③: 다리를 넓게 확장한다. 배꼽을 들어 올려 가슴을 끌어 올린다.

동작④: 숨을 내쉬면서 왼팔은 아래쪽으로 오른팔은 머리 위로 남기며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인다. 20초 유지, 좌우 각각 5회.*

박쥐자세로 상체 비틀기



自伐者無功 (자벌자무공)

도덕경 24장 해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완전한 인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궁금하다면, 신(神)의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신의 능력과 성품이 내밀히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이란 인간을 떠나 다른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밖의 마귀도 하나님도 부처님도 없다. 오직 인간 안에 잠재된 그 모든 것들을 외부로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 안에는 선도 있고, 영원성도 있고, 전지전능성도 있고, 시공을 초월한 무소부재함도 있다. 신의 초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도를 닦는 행위는 신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인간의 불완전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내는 것이다. 그 인간의 불완전성이란 도덕적 결함을 말한다. 완전한 선의 존재였으며, 영원한 생명의 존재였던 인간이 오늘날과 같이 죄의 존재로, 유한한 생명의 존재로 전락이 되고만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적 결함이 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경 선악시비를 분별하여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하는 문제가 우리 인간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도를 닦는 진정한 목적이다.

사람의 신체 구조상 발달됨과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이치와 같이 사람이 유별나게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면 인간의 생명이나 영예로운 이름 자체를 오래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跨者不行(과자불행): 발걸음을 크게 내딛는 자는 제대로 걸어 갈 수가 없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보폭이 있다. 그런데 역자로 크게 내딛으면, 우습기도 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오래 걸을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출렁거리면 머지않아 신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自見者不明 自是者不彰(자현자불명 자시자불창):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려고 애쓰는 자는 밝을 수가 없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는 드러날 수가 없다

자신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 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으며 신세를 망치는 행위라는 것이다.

自伐者無功(자벌자무공): 자신 스스로 공을 자랑하는 자는 공적이 없고

자신 스스로의 공을 자랑하는 그 순간 인간의 도리를 벗어 나는 것이며, 죄를 짓는 행위이며, 자신의 생명과 이름을 좁히는 행위니 그 공이 어디 있겠는가!

自矜者不長(자긍자부장): 자신 스스로 잘난 척 뽐내는 자는 더 성장할 수가 없다

잘난 척 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교만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미완성의 인간이 완전한 인격체가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를 등한히 하고

우월한다면 이미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其在道也 曰餘食贅行(기재도야 알여식취행):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고, 쓸모없는 군더더기 살과 같은 것이며,

도를 닦는 수도자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인간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등에 쓸모가 없으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物咸惡之(물함악지): 만물(자연)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자연 만물은 애초에 그러한 마음과

행위의 동기조차도 찾아 볼 수 없을뿐더러 좋아하지도 않는다.

故有道者不處(고유도자불처): 고로도를 지닌 사람은 그런 것에 머물지도 않는다

도를 닦는 행위는 인간의 영육 간에 흠과 티가 없는 완전무결한 인격체가 되고자 함이다. 마땅히, 도인은 인류의 완전한 자유, 영원한 생명, 최대의 행복과 이 땅위에 신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대원(大願)을 이루는 데 진력할 따름이지 그런 하찮은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인간 내면의 불완전성에 해당되는 몇 가지 요인을 사물의 이치와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양태를 가지고 비유 분석하여 그 정도(正道)의 행함을 말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 내면의 불완전성이 인간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문장을 예의 주시하여 살펴볼 일이다.

舍者不立(기자불립): 발돋움하고 있는 자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고

허만옥 승사 칼럼

인간은 물론 만물이 신이다

인간은 물론 만물이 모두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대상에 따라 대소(大小)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가 진동하고 있다. 삼라만상이 하나같이 진동하고 있으며,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발하고 독특한 파장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우주의 근본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탁자나 의자도 심지어 나의 몸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진동한다는 것이다. 손으로 만지듯 확실하게 질감이 있고, 속도 딱 채워져 있는 나무나 돌, 콘크리트 같은 것이 진동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양자역학 등의 과학 세계에서는 물질이란 본래 진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으로 여긴다. 물질을 아주 작게 나누면, 모든 것이 입자이면서 파장으로 변하는 불가사의한 세계와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질을 계속 쪼개서 원자라는 차원까지 작아지면 이 세계의 모든 물질은 원자핵의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것은 언제나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즉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다소 애매한 듯하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물체도 계속해서 쪼개면 보이지 않는 미립자가 되고, 보이지 않는 미립자도 원체로 되돌리면 물질이 된다는 내용이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간도 진동하며, 당연히 제각기 고유한 진동을 지니고 있으므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픈

주파수(周波數)를 내보내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은 밝은 빛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을 사랑하고 있다. 삼라만상이 하나같이 진동하는 사람은 사랑의 파동이, 약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겐 시커멓고 사악한 파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는 인간뿐 아니라 사물이나 장소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왜 그런지 교통사고가 잘 일어나는 장소가 있고, 가게를 내기만 하면 성공하는 복된 장소가 있다. 사물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은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大氣)의 에너지 변화가 천둥과 태풍을 일으킨다. 그 에너지가 매우 커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러나 지상에 피어 있는 약한 에너지를 강렬한 힘으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많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북과 꽁꽁리도 흥을 돋우는 장소에 밝고 향긋한 파동이 소용돌이치게 된다. 그 기세로 탁하게 괴어 있던 약한 에너지를 깨끗이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세상 만물은 하나같이 고유한 파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알면 이 우주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 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의구심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감동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 참으로 벅찬 새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진리를 깨우쳐 주신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직 뜨거운 감사를 드릴 뿐이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권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율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부산제단 : (051)863-6307	마산제단 : (055)241-1161	사천제단 : (055)833-7866	광주제단 : (062)524-4555	神戸祭壇 : (078)862-9522	神奈川祭壇 : (045)451-3150	London : (0208)894-1075
수원제단 : (031)236-8465	영도제단 : (051)912-7582	진주제단 : (055)745-9228	포항제단 : (054)292-5455	대전제단 : (042)522-1560	下關祭壇 : (0832)32-1988	Philadelphia : (215)722-2902	
안성제단 : (031) 673-4635	김해제단 : (055)327-2072	울산제단 : (052)291-1849	순천제단 : (061)744-8007	청주제단 : (043)233-6146	久留米祭壇 : (0942)21-4669		
평택제단 : (031)652-6438	충주제단 : 010-9980-5805	진해제단 : (055)544-7464	정읍제단 : (063)533-7125	금마제단 : (063)853-6673	岐阜祭壇 : (0584)32-1350		
이족제단 : (031)672-6786	대구제단 : (053)474-7900	영천제단 : (054)333-7121	군산제단 : (063)461-3491	橫濱祭壇 : (045)261-6338	大阪祭壇 : (06)6451-3914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